

첫날부터 고성·충돌·파행... 인사청문회 강대강 충돌

과방위 5분 만에 중단...강선우 청문회 열린 여가위, 14분 만에 정회 민주 '전원 생존' 목표 감싸기...국힘, 이진숙 등 5명 지명 철회 요구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부터 여야 갈등으로 일촉즉발로 시작했다. 14일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에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착석한 지 약 5분 만에 개의 절차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최민희 독재 아웃, 이재명 협치하라'는 문구를 쓴 팻말을 붙이자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 이 오갔고, 최민희 위원장은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산회 선포는 개의 전에 이뤄져 무효였지만 청문회는 일단 멈췄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 개최는 안 됐으며, 국민의힘이 회의장 질서를 교란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잠시 멈췄다"며 "질서가 바로잡히면 청문회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공세를 받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여야가 설전을 벌이면서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

일주일간 뻘뻘하게 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 내각 1기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여야의 팽팽한 대치 속에 시작부터 차질을 빚는 형국이다.

국회는 오는 18일까지 총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및 국제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시다발적으로 열어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한다. 하루 최대 5명의 후보자가 청문회에 오르는 강행군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정동력을 확보하려면 청문정국을 '스크래치' 없이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전원 생존'을 목표로 하고 야당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로 규정하면서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엄호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베풀고 있다. 계엄 사태와 탄핵, 대선 패배 등으로 극심한 내홍을 빠져 있지만 청문회를 계기로 '야성'을 되찾고 정부·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가·이진숙 교육·권오을 국가보훈·조현 외교·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오직'으로 규정, 이들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들은 청문회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주장하면서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고 엄밀히 따지면 전원이 실격"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갑질 논란, 거짓 해명, 내부 제보자에 대한 법적 협박 등 강 후보자는 공직 후보자격을 상실했다"고 공격했다.

김대식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를 겨냥, "제자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이른바 논문 조끼기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공교육의 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연구 부정 행위 의혹이 이 정도로 쌓였다면 국민이 신뢰할 여지는 더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도 후보자를 향한 공세 대열에 가세했다.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정작 여당이 되어서 버티기와 내로남불로 버티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 지고 내릴 사람은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여당의 항의가 이어지자 때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태의연한 카더라식,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를 넘는 국정 발목 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후보자는 진솔한 답변으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

하고, 준비된 역량과 실천 의지를 잘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 청문회를 통해 충실히 의혹을 소명하면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집중되는 이진숙·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일단 청문회를 통해 충실히 의혹을 소명하면 '정면 돌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감지된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우상호 "청문회 여론 살핀 후 임명 검토"

(정무수석)

"검증서 몰랐던 일 있을수 있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국민 여론을 살피며 임명 여부를 최종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회를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 과정에) 과거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며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관 후보자들이 제기된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얼마나 소명하는지, 이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어떤지 지켜보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인선 발표 이후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일주일에 1~2회 관련 내용이 보고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조원철 변호사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변호를 맡은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탄·보은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는 "법조계 안에서 평이 좋은 분이 다. 능력도 인정받고,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변호인을 맡았지만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 대응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부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규백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도 도입 필요"

국방장관 후보 답변 자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검증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안 후보자는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후보자의 정책비전과 능력 검증 위주로 실시하고, 지휘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의 일환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국방부 장관 및 실장 등에 대한 예비 임용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드러냈다.

그는 "국방부 장관 및 소속 정장은 전역 후 3년, 국방부 실장급은 전역 후 2년 동안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냐"는 백 의원의 질의에 "일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군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자는 또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통합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가운데 예비 장교 대상 민주주의 및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그는 "기존 (장교 육성 교육기관의) 법 관련 교과목에 일부 반영해 선택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모든 학교가 '헌법 및 민주시민' 교육과목 및 내용을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질의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를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적의 탄도미사일을 고도 90~500km의 중간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SM-3' 도입에 관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는 "다층방어체계 강화를 위해 신형 이지스함에 탑재될 SM-3의 적기 전력화는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는 "핵 잠재력 확보는 핵 비확산 측면의 민감성, 경제성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부 의원의 질의에는 "독립군과 광복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 열린다. /연합뉴스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